Press Release

배포일자: 26.09.02

오비고, 현대자동차그룹 '플레오스 커넥트'에 차량 오디오 플랫폼 '픽클' 탑재

- **현대차그룹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'플레오스 커넥트'에 픽클 탑재**
- **주요 방송·미디어사 콘텐츠 AI 큐레이션 및 차량 맞춤형 오디오 BM 구축 본격화**

<2026-09-02>모빌리티 라이프 AX(AI 전환) 플랫폼 전문기업 오비고(352910, 대표이사 황도연)는 현대자동차그룹의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'플레오스 커넥트(Pleos Connect)'에 차량용 오디오 플랫폼 '픽클(Pickle)'을 탑재한다고 2 일 밝혔다.

이번 적용을 통해 픽클은 플레오스 커넥트에서 이용할 수 있는 차량 특화 큐레이션, 오디오 서비스를 선보인다. 플레오스 커넥트는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 OS(AAOS)를 기반으로 다양한 앱과 서비스를 차량 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현대자동차그룹의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다. 현대자동차그룹은 향후 주요 신차를 중심으로 플레오스 커넥트 적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.

픽클은 차량에서 뉴스, 교양, 라이프스타일 등 다양한 오디오 콘텐츠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 오비고의 차량 특화 오디오 플랫폼이다. 특별히 졸음케어 콘텐츠, 키즈와 어학, 오디오 드라마 등 차 안에서 소비되는 프리미엄 오디오 콘텐츠를 제공한다.

오비고는 픽클 서비스를 위해 KBS, MBC, YTN, CTS 등 국내 주요 방송·미디어사와 콘텐츠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다양한 오디오 콘텐츠를 확보해왔다. 일반적인 모바일 오디오 서비스를 차량으로 단순 확장하는 방식에서 벗어나, 운전 중에도 손쉽게 콘텐츠를 탐색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차량 환경에 최적화된 서비스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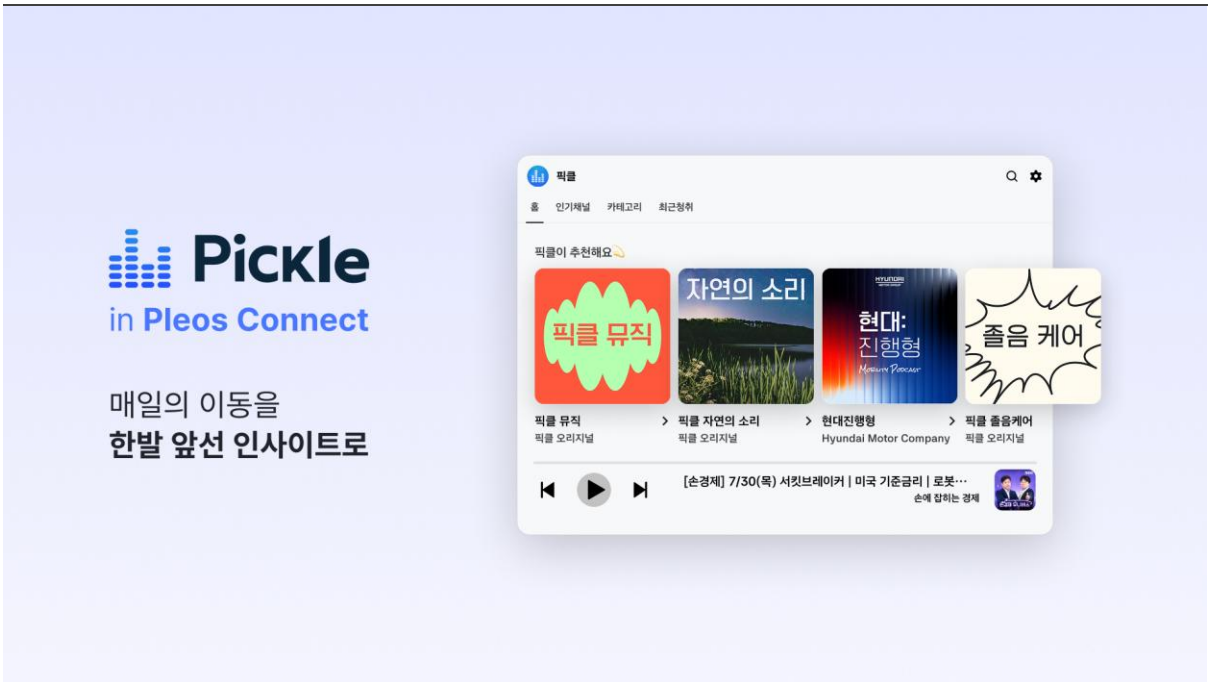
특히 이번 플레오스 커넥트 탑재는 오비고가 자체 콘텐츠 서비스의 접점을 현대자동차그룹의 차세대 차량 플랫폼까지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. 오비고는 이번 공급을 시작으로 플레오스 커넥트 뿐만 아니라 르노, 볼보, 폴스타 등 적용 차종을 확대하며 픽클 서비스의 공급 범위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. 또한 차량 OEM사·방송사·미디어 광고 파트너사와의 협업을 강화해 차량에서 소비하기 적합한 오디오 콘텐츠와 큐레이션을 지속 확대한다.

향후에는 차량 및 이용 맥락을 활용한 콘텐츠 개인화, AI 기반 큐레이션 고도화, 차량 내 타겟팅 오디오 광고 등으로 서비스를 확장해, 이용자가 운전 상황과 취향에 맞는 콘텐츠를 보다 편리하게 발견하고 즐길 수 있는 청취 경험을 제공한다는 전략이다. 이를 바탕으로 듣는 콘텐츠와 차량 서비스를 자연스럽게 연결하며, 이용자에게는 더 가치 있는 차량 내 오디오 경험을 제공하고, 산업 측면에서는 새로운 모빌리티 오디오 생태계를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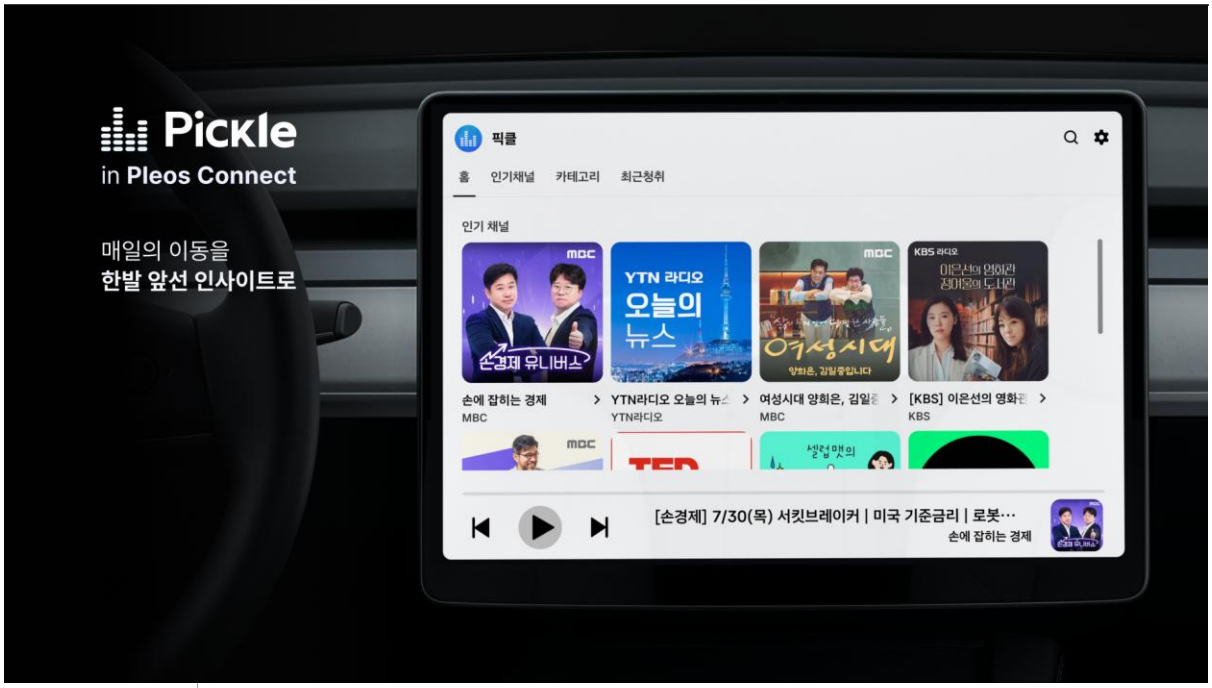
황도연 오비고 대표이사는 "현대자동차그룹의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플랫폼에 오비고의 자체 콘텐츠 서비

스인 픽클을 선보이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"며 "이번 픽클 탑재를 시작으로 차량 안에서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와 서비스를 지속 확대하고, 향후 AI 기술을 접목한 개인화 서비스까지 고도화해 차별화된 모빌리티 라이프 경험을 제공하겠다"고 말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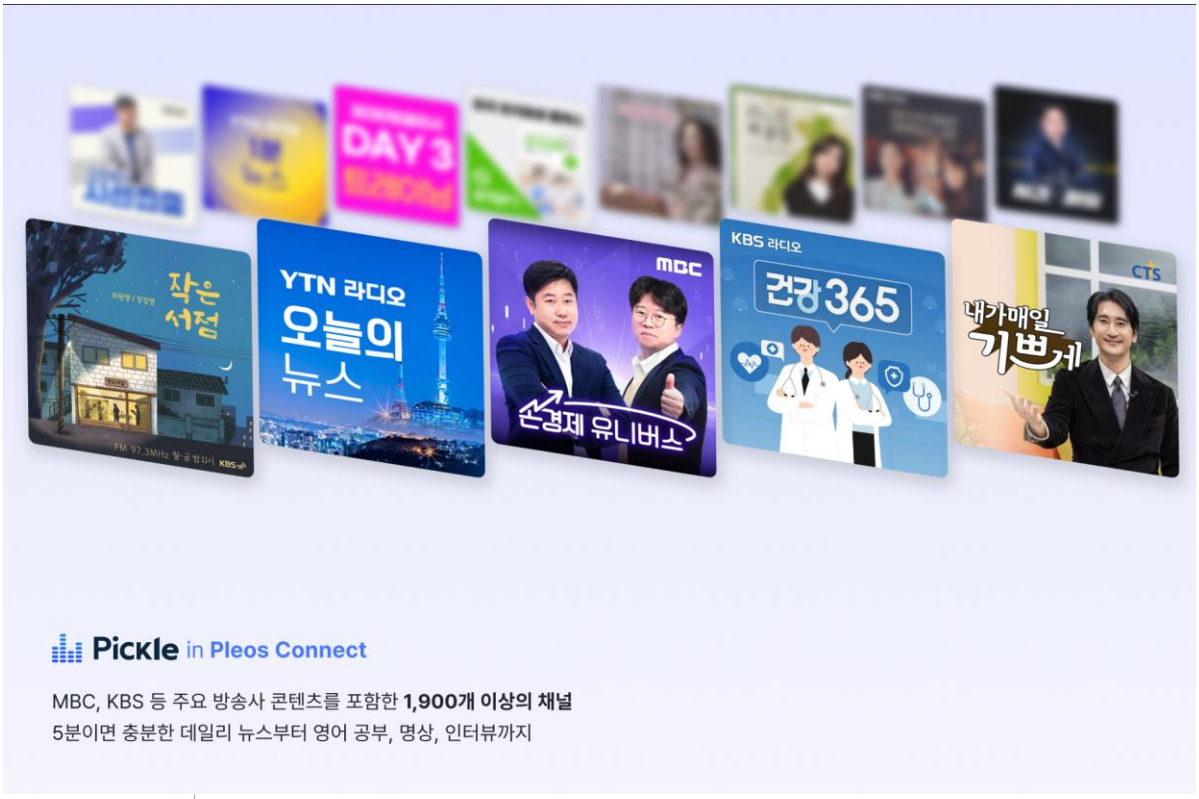
◇ 참고자료



사진설명	오비고 Pickle 1.0_Pleos IR이미지1



사진설명	오비고 Pickle 1.0_Pleos IR이미지2



사진설명	오비고 Pickle 1.0_Pleos IR이미지3